

성·경·신과 대순수양론 연구

李京源*

目次	
I. 序言	2. 天地公事の 결정론적 성격
II. 대순사상의 수양론적 기반	3. 心の 主宰性和 수양주체의 확립
1. 대순사상의 신앙적 성격	IV. 이상적 삶과 성·경·신의 실천론
2. 신앙목적으로서의 도통	1. 安心·安身과 醫統의 체득
3. 신앙방법으로서의 신조	2. 福祿誠敬信과 壽命誠敬信
III. 성·경·신론의 수양철학적 구조	3. 성·경·신의 생활화와 道通眞境의 실현
1. 九天上帝와 天地誠敬信	V. 結言

I. 序言

대순사상은 지금으로부터 130여년 전 이 땅에 강세한 구천상제로부터 비롯된 신앙이다. 상제의 無所不爲의 권능으로 9년간의 대공사를 집행하시고 화천한 이후 새롭게 창설된 종단을 통해 오늘날 그 진리를 이어오고 있다. 대순진리회는 구천상제를 신앙하는 현대종단으로서 초기교단의 宗旨와 信條 目的에 입각하여 새로운 종교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종지에서는 대순사상의 大體를 요약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 道通眞境’은 오늘날의 인류를 위한 새로운 세계관을 담고 있다. 과거 인류의 역사가 상극에 지배되어 원한이 점철된 위기의 세계라면 앞으로의 세계는 어떤 원한도 없는 지상선경의 낙원을 상징한다. 그 세계의 이념을 종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信條는 종지에서 표방한 세계를 맞이하기 위한 실천적

*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구천상제께서 확정한 천지공사를 뒤이어 遺志를 崇信하고 歸依하는 일체의 태도는 모두 信條에 담겨있다. 신조에서 제시된 四綱領과 三要諦는 그 구체적인 조목에 해당된다. 目的에서는 신앙적 실천이 지향하는 궁극적 인간상 사회상 세계상을 제시함으로써 그 이상적 가치를 설정한 것이다.

본 고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신조에 있어서 삼요체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이다. 그 개념에 관한 이해는 앞선 논문을 통해 충분히 밝혔으므로 여기서는 그 사상적 특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誠·敬·信으로 이루어진 삼요체는 동양전통의 수양론에 의해 조명될 수 있는 바 ‘대순수양론’의 관점에서 그 大綱을 살펴보는 것은 교학연구에 있어 충분한 의의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먼저 대순사상이 하나의 종교신앙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 신앙적 기반하에서 어떤 수양철학적 구조를 지니는가를 논한 뒤 일상의 실천론을 통해 가치실현의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하겠다.

Ⅱ. 대순사상의 수양론적 기반

1. 대순사상의 신앙적 성격

대순사상은 종단 대순진리회의 신앙체계를 담고 있는 교학사상이다.¹⁾ 대순진리회는 조정산 도주가 만주 봉천에서 姜聖上帝로부터 그 천부의 종통계승의 계시를 받아 無極道 종단을 창설한데서 비롯하여 도주의 遺命으로 종통을 이어받은 朴牛堂 都典이 領導하여 현재에 이르는 종단을 말한다.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 보고서』(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1997)에 따르면 대순

1) 일반적으로 ‘甌山思想’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研究경향은 특정 교단의 신앙체계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구한 말 인물 강증산의 사상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를 일컫는 것이다. 여기에는 강증산에 대한 신앙대상으로서의 위격이 통일될 수 없고, 또한 그 주된 연구자료인 『大巡典經』(이상호 著 1929년 초판, 1965년 6판 개정)은 개인 저작물의 성격이 강하여 교단의 신앙체계를 구성하는 경전으로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강증산의 傳記형식에서 구성된 경전의 초기형태인 반면 대순진리회 교무부 간행 『典經』(1974년 발행)은 대순사상의 所依經典으로서 강증산을 신앙하는 교파의 일정한 신앙체계를 담고 있는 경전이라 하겠다.

진리회는 甌山系에 속하면서 檀君系 水雲系등과 같이 韓國自生新宗教로 분류되고 있다. 甌山系 교파의 숫자는 1997년 현재 그간 없어진 것, 이름을 바꾸거나 하여 증산교의 교파명칭으로 대두된 것까지를 모두 합하면 100개가 넘고 현재도 40여개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²⁾ 여기에 대순진리회는 비교적 많은 신도수를 확보하면서 ‘大巡思想’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증산사상을 대변하며 그 독자적인 신앙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순사상은 대순종단의 교학사상을 말하며, 대순종단은 강성상제를 신앙대상으로 하여 趙鼎山 도주가 확립한 교리체계를 신봉하는 鼎山系의 대표적인 교단을 말한다.

‘대순종단’의 교리체계는 크게 다음의 네가지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신앙대상이며, 둘째는 宗旨이며, 셋째는 신조이며, 넷째는 목적이다. 신앙대상은 강세한 강증산을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신앙함이며, 宗旨는 도주 조정산이 파악한 姜聖上帝의 사상을 핵심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信條는 종지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신앙의 방법을 가리키며, 목적은 그 신앙생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경지를 말한다.³⁾ 이는 하나의 종교교단으로서 표방되어야 하는 교리체계의 大段이며, 신앙적 태도에 입각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나아가 그 교리의 보편화작업을 위해서는 종교학 및 철학의 방법론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신종교로서 대순사상에 나타난 수양론의 내용은 주로 그 종교적

2) 김홍철·유병덕·양은용 著,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刊, 1997, p.152

3) 대순진리회 교무부 刊(1974) 『典經』 교운2장 32절에는 이 같은 교리체계의 확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을축년에 구태인 도창현(舊泰仁道昌峴)에 도장이 이룩되니 이 때 도주께서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시고 상제를 구천 응원 뇌성 보화 천존 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고 종지(宗旨) 및 신조(信條)와 목적(目的)을 정하셨도다.

종지(宗旨)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 道通眞境)

신조(信條)

사강령(四綱領)… 안심(安心)·안신(安身)·경천(敬天)·수도(修道)

삼요제(三要諦)… 성(誠)·경(敬)·신(信)

목적(目的)

무자기(無自欺)

정신개벽(精神開闢)

지상 신선 실현(地上神仙實現) 인간 개조(人間改造)

지상 천국 건설(地上天國建設) 세계 개벽(世界開闢)

신앙 체계에 입각하여 설명될 수 있다. 즉 신앙대상의 顯身과 그 役事가 종교적 수양론의 토대가 되고 나아가 종단의 信條를 통한 실천과정이 수행의 要諦가 된다. 여기서 신앙대상의 존재는 한국의 역사적 종교가로서 異蹟을 행한 姜甌山(1871~1909)에 대한 위격을 담고 있으며, 그 言說에 나타난 인간의 내재적 가치문제를 교리적으로 여하히 해석해나가느냐는 것이 곧 수양론적 구도를 이루고 있다.

2. 신앙목적으로서의 도통

대순사상에 입각한 신앙활동은 일정한 지향성을 지니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목적의식은 ‘道通’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묘사된다. 이는 곧 수양의 목적이 되며 이법적 개념으로서의 ‘道’를 體認하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초월적 대상으로서의 神을 논하더라도 가치실현의 주체로서 대두되는 인간의 행위에는 하나의 이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능동적인 태도를 갖출 수 없다. 종교경험의 본질에 있어서 대두되는 궁극적 실재는 그 속성상 인격적인 면과 비인격적인 것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양면성을 인정할 때 비인격적(또는 理法的)인 실재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에서는 인간주체가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수양의 주체를 신이 아닌 인간으로 볼 때 수양론에서는 항상 이법적인 대상과 결부되어야만 하는 것이 필연적이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대순사상이 제시하는 道通은 인간주체를 염두에 두고 수양을 통해 그 초월적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담고 있는 개념이다.

구천상제에 대한 신앙이 하나의 수양론적 목적에 해당하는 道通으로의 지향성을 띠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언급 때문으로 본다.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文化)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썰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 4)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

4) 『典經』 예시 12절

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⁵⁾

윗 글에서 구천상제는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린 최고 主宰格의 神人으로서 '天地公事'라고 하는 대 작업을 단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물샷틈 없는 도수는 하나의 역사적 프로그램과도 같이 진행되어 급기야는 '도통'이라고 하는 究極의 경지를 인간에게 제공하게 된다. 도통줄은 곧 종통계승과도 같은 가르침의 전수를 말하며, 이렇게 이루게 되는 '도통'의 현상은 모든 종교적 神들을 받아들이는 神人合一의 경지임을 말한다. 여기서 道는 理法性을 지니는 것이지만 道通에 이르러서는 人格神이 배제되지 않는 통일적 경지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의 과정이 있는 연후야 초월적 神과의 만남도 가능한 것이다.

수양의 목적으로 제시된 도통이 의미를 가질 때 이법적 의미를 지닌 '道'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으로 지칭할 수 있을까. 이는 곧 인간이 수양을 할 때 하나의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진리관을 이루는 주요개념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전통적으로 동양사상에서는 '天道' '人道' '常道'를 일컬어왔지만 대순사상에서는 주로 '神道'를 강조하고 있다. 수양론의 신앙적 토대를 지니고 있는 만큼 종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神道가 주요한 규범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통'은 단순히 이성적 각성이 아닌, 많은 신적인 존재들이 참여하는 신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말하자면 대순사상을 구성하는 주요요소의 하나가 神觀임을 알 수 있으며,⁶⁾ 마찬가지로 도통을 위한 수양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神의 권위가 존중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道'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때에는 항상 '神道'로써 주장하게 된다.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드는 대로 새 기쁨이 열리리라.⁷⁾

동양의 경전에 나타난 神道는 '天道' '天行' '天則'등의 개념과 유사한 것

5) 『典經』 교운 1장 41절

6) 拙稿 「大巡神觀과 神人調化의 理想」 대순사상논총 제 3집, 대순사상학술원, 1997 참조

7) 『典經』 예시 73절

으로 人道를 성립시키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주로 四時의 어김없는 변화에 내포되어 있으며 聖人の 가르침이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⁸⁾ 이 때 ‘神道’의 ‘神’은 ‘신령스러움’을 나타내는 수식어로서 道의 속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순사상에서의 神道는 초월적 권위를 지닌 ‘神’적인 존재가 인간을 둘러싼 세계 전체에 편만해 있으면서 하나의 질서를 이루고 있음을 뜻하는 개념이다. 즉 道는 하나의 원리이자 질서이며 神은 인간과 상대하는 絕對他者이다. 신과 인간이라는 이원론적 구도가 道라고 하는 때 개적 질서를 통해 연결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현상계의 모습으로 설명된다.

대순사상에서 이러한 神道가 수양론에 있어서 하나의 규범으로 제시될 수 있는 까닭은 주로 인격신의 엄격함과 절대적 권위에 따른 監察으로써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⁹⁾

즉 천지성공의 시대에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모든 의로운 사람을 도와 수양의 결실을 이루는 것은 神의 權能이다. 여기에 ‘神道’는 ‘神의 道’로서 ‘무위화’(無爲而化)의 작용을 통해 仙境의 세계를 여는 절대 규범으로 기능하게 된다.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한 公平無私한 자리에서 인간의 잘잘못을 가려내어 賞善罰惡¹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은 조선후기 유학자 尹鏞(白湖 1617~1680)의 문집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사람이란, 천지의 마음이요 귀신의 모듬쳐인 것이다. 천지나 귀신이 역시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옛분들이, 유명(幽明)의 원인을 훤히 통하

8) 「易經」 觀卦, 象曰「觀天之神道而四時不忒, 聖人以神道設教而天下服矣」

9) 「典經」 예시 30절

10) 「商書」, 湯誥에는 「天道, 福善禍淫」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고 귀신의 정상을 알았던 것이다. 옛분들은 무언가 늘 아쉽고 조심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상제가 항상 위에서 보고 계시고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첫 번째도 상제요 두 번째도 상제였으며, 일 하나만 해도 상제가 명하신 것으로 알았고 不善을 하려다가도 상제가 금하는 것이라 여겨 하지 않았다. 어찌 증거도 없는 말에 집착하여 내 마음을 속일 것이며, 어둡고 알 수 없는 것을 내세워 천하 후세를 현혹시킬 것인가.¹¹⁾

즉 사람은 天地의 마음이고 또 鬼神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天地 鬼神의 작용을 사람이 훤히 알 수 있으며, 나아가 모든 일에 있어서 最高神으로서의 상제께서 觀鑑하는 것을 알아 어떠한 不善도 저지를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人格神의 존재가 강조되는 것은 그만큼 인간으로 하여금 실천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듯이 종교적 수양론에 있어서 神道는 이법적인 '道'의 무게보다는 人格神를 뜻하는 '神'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하겠다.

대순사상에 나타난 수양의 목적이 '도통'이라고 할 만한 근거로서는 도통이 누구나 바라는 인간의 이상적 경지이며 각자 수양의 정도에 따라 적합하게 부여받는 보편적 규정이라는데 있다.¹²⁾ 개인의 이상임과 동시에 세계전체의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다. 도통인이 모여사는 세계는 모든 인간이 갈구하는 이상향을 이룬다. 대순신앙의 교리개요 가운데 목적으로 제시된 무자기-정신개벽, 인간개조-지상신선실현, 세계개벽-지상천국건설은 도통이 이루어진 세계의 실상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단 수양론적 관점에서 주목해 두어야 할 사항은 '도통'이라는 것이 믿음을 위주로 한 '救援'의 경지라기 보다는 신앙대상으로부터의 가르침이 자기 수양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자아완성의 개념에 가깝다는 것이다. 인용문의 구절가운데

11) 『白湖全書』卷33, 雜著, 庚辰日錄, 4月, 2日 癸丑, 「人也者, 天地之心鬼神之會也, 天地鬼神, 其亦若是焉而已, 此古之人所以通幽明之故, 知鬼神之情狀者也, 古之人皇皇翼翼, 愴愴靡寧, 凜凜乎若臨之在上, 質之在旁, 一則曰上帝, 二則曰上帝, 行一事則曰上帝所命, 作不善則曰, 上帝所禁, 夫豈執無徵之說以欺吾心, 假幽昧不可究, 以惑天下後世者」

12) 다음의 『典經』 구절은 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아진다. ; 교운1장 34절.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공자(孔子)는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五백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제는 七일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재는 二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고 한 것은 이를 잘 대변해주는 내용이다. 그리하여 각자 성숙된 자아끼리 서로 모여서 생활해 나가는 사회의 모습은 가치실현이 극대화된 상태를 그려주고 있는 것이다.

3. 신앙방법으로서의 신조

수양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개인적 경지와 아울러 神道라고 하는 규범이 주어져 있을 때 대순사상의 교리체계 내에서는 크게 두가지 범주에서 신앙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四綱領과 三要諦가 그것인데, 安心·安心·敬天·修道는 네가지 강령이며 誠·敬·信은 세가지 요체이다.

사강령에서는 一身의 차원에서 心과 身을 다스리는 것, 진리관의 차원에서는 궁극자인 天과 이법으로서의 道를 행하는 것으로 나뉘어진다. 一身의 행동을 규약하는 것이 安心 安身이므로 이 두가지는 二律令에 해당하고, 신앙대상의 설정과 그 신앙행위를 총칭하는 것이 敬天 修道이므로 여기서 모든 의례가 이루어진다.

앞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수양의 주체가 되는 인간의 본질은 ‘마음’이라고 하는 기관에 있다고 하였다. 인간의 마음은 모든 언사와 행동을 주관하는 것으로 인간존재의 중심이면서 또한 천지의 중심이기도 하다.¹³⁾ 수양이란 바로 이러한 마음을 닦는 것으로 일관하고 그 주된 결과는 닦은 마음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神이 應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마음은 인간이 신과 교류할 수 있는 주된 기관으로 보고 매사에 그 機微를 살피는 것이 주된 과제가 된다. 安心은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그 마음이 다스려 질 때 몸도 다스려진다는 것이니 이것이 安身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몸을 ‘魂魄결합의 존재’¹⁴⁾로 보고 있다. 혼은 인간에 내재한 정신적 존재를 말하고 백은 육체적 존재를 말한다. 인간을 어느

13) 『典經』 교운 1장 66절 「…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 …」

14) 『典經』 교법1장 50절 “김 송환이 사후 일을 여쭙어 물으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사람에게 혼과 백이 있나니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다가 사대(四代)를 넘긴 후로 영도 되고 선도 되니라.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니라」 하셨도다.”

한쪽에만 본질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양면적인 결합과 함께 그 두가지 측면의 수양이 병행해야만 완전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天地에 가득찬 것을 神으로 보고¹⁵⁾ 이러한 신이 인간의 마음을 통해 들락 날락 하면서 그 善· 惡을 행사할 때 이를 마음에서부터 잘 살피어 올바른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다. 善과 惡의 갈림길에서 이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자율권에 달려있다. 이로써 몸의 안정과 함께 예의에 맞는 행위가 우러나올 수 있음을 말한다.¹⁶⁾

인간이 지닌 마음으로 모든 신이 오가고 있다면 인간은 항상 신적인 존재에 대해 경건하면서도 외경하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또한 수양의 방법이 될 것이다. 敬天에 관한 교학적 해석을 살펴보면 “모든 행동에 조심하여 상제님 받드는 마음을 자나깨나 잊지 말고 항상 상제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 속에 새겨두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¹⁷⁾고 하여 최고 신격에 해당하는 구천상제에 대한 존숭과 함께 神道の 권위를 담당하는 여러 諸神들에게 엄숙하고 조심하는 자세를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다.

敬天에 있어서 敬은 경건함, 恭敬함, 畏敬함의 뜻을 지니고 그 대상은 天으로 대변되는 神的 존재를 일컫는다. 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나의 自然天에 대한 이해보다는 다양한 神의 존재를 내포하는 人格天의 내용이 보다 근접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天의 의미에 대해서는 典經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참고해 볼 수 있다.

하루는 김 송환(金松煥)이 상제께 여쭙기를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나 이까.」 상제께서 「있느니라」고 대답하시니라. 또 그가 묻기를 「그 위에 또 있나 이까.」 상제께서 「또 있느니라」고 대답하셨도다. 이와 같이 아홉 번을 대답하시고 「그만 알아두라」고 이르셨도다. 상제께서 후일에 그를 만사불성(萬事不成)이라 평하셨나니라.¹⁸⁾

15) 『典經』 교법3장 2절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

16) 대순진리회 요람, 安身 「마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몸이니 모든 행동을 법례에 합당케 하며 도리에 알맞게 하고 의리와 예법에 맞지 않는 허영에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대순진리회 교무부, 1969, p.15

17) 『대순진리회 요람』 교무부 刊, 1969, p15

18) 행록 4장 4절

즉 天은 이미 현상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늘 위의 하늘’을 말하고 있으며, 인간의 감각을 초월한 신비적 의미의 공간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그 하늘은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어 보다 고차원의 공간이 있는가 하면 저차원의 공간도 존재함으로 중층적인 구조를 직관해야 파악가능한 하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늘의 본질은 그 속에 가득히 존재하는 神이며, 그 신적인 존재들이 하나의 체계와 단계를 이루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天에 대한 관점인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체계를 갖추고 위격이 구분되는 신의 세계가 곧 대순사상에서 신앙되는 天의 실상인 것이다.

대순신앙의 체계를 정립한 도주 조정산은 이러한 天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법하고 있다.

…하늘은 삼십 육천(三十六天)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뇌성 보화 천존 상제(雷聲普化天尊上帝)이시니라. 천상의 전기가 바닷물에 있었으니 바닷물의 전기로써 만물을 포장하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¹⁹⁾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는 天이 도주에 이르러서는 삼십육천을 지칭하고 있다. 보다 세분된 의미라고 하겠지만 역시 하나의 天을 그만큼 자세히 나누어 설명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단 주목되는 것은 다양한 신의 존재 내에서 최고 통솔자의 위격에 있는 분이 곧 구천상제이며 전기를 맡아서 천지만물을 지배자양하므로 뇌성보화천존상제임을 밝히고 있는 점이다. 이는 신앙대상으로서 상제의 위격을 人格天觀의 입장에서 정립한 것이라 하겠다.

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고 나면 神道の 규범에 따라 자기 완성을 위한 수련적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는 ‘修道’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태로 나아가게 된다. 이 또한 수양의 방법중의 하나로서 “마음과 몸을 沈着하고 潛心하여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을 모아서 단전에 연마하여 靈通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으로 봉축하여야 한다.”²⁰⁾는 교학적 해석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修道의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절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

19) 교운 2장 55절

20) 대순진리회 요람, p.15~16

다.

도를 닦은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치기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 하리라.²¹⁾

말하자면 修道를 통해 자기의 정혼을 모을 수 있고 이는 죽어서도 천상에 오를 수 있는 영적인 완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수양적 실천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의 체험적 현상이 분명히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수양의 규범으로 제시된 神道와 修道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구절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 고 김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²²⁾

윗 글에서 보면 먼저 神道는 신의 세계를 지배하는 엄격한 원리임을 알 수 있으며 인사를 결정짓는 一太 근거가 되고 있다. 이것은 天道와 대비해 볼 때 추상적 의미의 뜻이 보다 인격화, 신격화된 점을 부각시킨 것이며, 인간사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결정짓는 규범으로 강조되고 있다. 인간과 신의 이원화된 세계에서 인간사회의 모든 긍정적인 결과는 이렇게 神道와의 합일과정에 달려 있음을 말하는 것이 또한 대순사상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²³⁾

한편 常道는 ‘항상됨’ ‘뒤통함’ ‘일정함’의 의미를 강조하여 규범으로서의

21) 『典經』 교법 2장 22절

22) 공사 1장 3절

23) 예시 73절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착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

道가 天地人 삼계에 걸쳐 두루 시행되고 있음을 표현한 용어이다. 道家思想의 常道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²⁴⁾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질서 또는 법칙을 담고 있다. 천지가 처음 생겨난 때부터 존재한 常道는 항상 천지의 운행이 고르게 이루어지게끔 역할해 왔던 것이고 인간도 이러한 상도의 규범에 맞게끔 사는 것이 미덕으로 알려져 왔던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유독 이러한 상도를 망각하고 상극이 지배된 선천의 세계에서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원한을 쌓아왔으니 일정하게 변화해가야만 하는 상도가 어그러지게 되었던 것이다. 상제의 천지공사는 이렇게 무너진 상도를 바로 잡기 위한 데서부터 시작하여 다시는 상도가 무너지지 않게끔 相生이라고 하는 원리로 새 세상을 구상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천지공사’ 또는 ‘삼계공사’라고 하는 大役事이다. 이렇게 볼 때 상도는 천지와 인간에 걸쳐 전체의 질서를 유지시킨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修道는 위에서 언급한 道の 규범을 자각하고 이를 준수하며 시행해 나가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다. 즉 道에는 常道가 있음을 알아 현실 인식의 기반으로 삼아야 하고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한 준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때 神道는 엄격하고 자세하므로 항상 인간의 행위를 규찰하고 감독하는 통제성을 지닌다. 인격신의 존재를 신앙하는 태도에서부터 논의되는 수양론적 규범이므로 자신의 언행에 항상 삼가고 조심하는 실천이 요구된다.

신조의 三要諦로 제시된 誠·敬·信은 동양의 전통적 수양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보다 종교성이 강한 의미로서 이해될 수 있다. 誠과 敬은 본래 유학에서 강조되어 온 수양의 덕목으로서 조선 중기 栗谷과 退溪에 의해 그 사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栗谷은 주로 ‘誠論’에 입각해서 그의 사상을 전개하였고 退溪는 ‘敬論’을 그의 사상적 근간으로 삼았다. 儒學에서 논의되는 誠의 개념은 德目 그리고 天道와 人性등으로 설명되며²⁵⁾ 栗谷이 특히 강조

24) 老子 道德經 1장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25) 첫째, 德目으로서의 誠 개념은 「中庸集註」에 「誠者, 眞實無妄之謂也」(20章); 「禮記」樂記篇에 「著誠去僞, 禮之經也」; 「周易」乾卦文言에 「閑邪存其誠」이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誠이란 진실한 것으로 망령됨이 없고 허위를 제거하며 사악한 것을 막는데서 나타나는 인간의 품덕을 가리키고 있다. 둘째, 天道로서의 誠 개념은 「中庸章句」에서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20章)에

한 것은 ‘全體之誠’으로서의 ‘至誠’이다. 이것은 天道와 人道를 두루 通貫하는 것으로 體用이 겸비된 ‘實理’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²⁶⁾ 敬의 개념은 주로 言行에 있어서 자신을 단속하는 心身의 자세를 가리킨다.²⁷⁾ 宋代儒學에 이르러 그 사상적 심화를 이루었으며,²⁸⁾ 退溪는 특히 工夫로서의 敬思想을 강조하였다.²⁹⁾ 구한 말 종교가 崔水雲은 이러한 儒學的 德目에 해당하는 誠과 敬의 개념을 그의 사상에서 援用하고³⁰⁾ 거기다가 ‘信’字를 덧붙여 그 자

대한 朱子注 「誠者, 眞實無妄之謂也 天理之本然也 誠之者 未能眞實無妄而欲其眞實無妄之謂, 人事之當然」에서 알 수 있듯이 誠은 天人合一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天道이며 天理의 본연이다. 그리고 이러한 誠은 「誠者 物之終始 不誠 無物....誠者 非自成己而已也 所以成物也」(25章)에서처럼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이루는 소이가 된다. 셋째 人性으로서의 誠 개념은 「中庸」의 誠에 관한 학설이 발전한 것으로 李翱와 周敦頤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李翱는 그의 「復性書」上에서 「誠者, 聖人性之也,....復其性者 賢人循之而巳者也, 不已, 則能歸其源矣」라고 하였고 周敦頤는 「通書」誠上第一에서 「大哉乾元, 萬物資始 誠之源也 乾道變化 各正性命 誠斯立焉 純粹至善者也」라고 하여 誠은 도덕수양을 통해 나타나는 인간의 착한 本性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誠의 개념은 대체로 天道와 人道에 공통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들을 관통하여 天人合一을 가능케 하는 수양적 개념으로 일컬을 수 있다.

- 26) 栗谷에 있어서 誠의 실현에는 ‘誠意’ ‘實心’ ‘誠身’ ‘至誠’등의 등급 또는 질서가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至誠」의 경지는 「全體之誠」, 「動而世爲天下法, 經綸天下之誠」(「栗谷全書」誠策 참고)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誠이 栗谷이 말하는 誠의 최고목표이다. 율곡은 또한 誠을 논하려면 먼저 實理之誠과 實心之誠을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實理라는 것은 本體論적인 용어로서 天道의 卽體卽用한 化育을 가리키며, 實心이란 생명을 영위하는 나의 현실의 생활에서 기쁨의 拘礙나 기질의 편벽됨을 극복되치고 순수한 天理로 복귀한 것을 의미한다. (以上은 蔡茂松 「退溪 栗谷哲學의 比較研究」 성대출판부, 1985, pp.157~159 참조)
- 27) 「論語」에서 「修己以敬」(憲問), 「敬事而信」(學而), 「久而敬之」(公治長), 「祭思敬」(子張), 「其事上也敬」(公治長), 「敬鬼神而遠之 可謂知矣」(雍也)의 내용과 「孟子」에서 「仁者愛人 有禮者敬人」(離婁下), 「親親仁也 敬長義也」(盡心上)등의 내용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준칙’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 28) 程顥는 敬이 誠의 실제공부라고 보아 人事의 근본이며 곧 誠이라고 하였다. (「二程遺書」卷1 「誠者 天之道 敬者 人事之本 敬則誠」) 程顥는 敬을 곧 ‘主一’로 규정하여 心身의 통일 혹은 집중상태등을 뜻한다고 하였다.(「二程粹言」卷1 「主一之謂敬」; 「二程遺書」卷15 「只是整齊嚴肅, 則心便一」) 朱子는 人慾을 제거하기 위하여 항상 惽心을 경각 또는 喚醒시켜야 한다고 하고 경건하고도 정성스러운 태도를 유지하여 畏謹하는 자세야 말로 敬의 內涵이라고 강조하였다. (「朱子語類」卷12 持守 참조)
- 29) ‘持敬工夫’ 또는 ‘主敬工夫’라고도 한다. 「退溪全書」戊辰六條疏 p.185 「敬以爲主, 而事事物物, 莫不窮其所當然與所以然之故」; 聖學十圖- 大學經 p.203 「敬者, 一心之主宰而萬事之根本也」
- 30) 水雲은 자신의 思想 가운데 수양론적 개념에 해당하는 誠과 敬에 대해서는 유

신의 독특한 수양론을 성립시킨 바 있다.³¹⁾ 水雲의 誠敬信론은 어떤 절대적 존재 앞에 무조건으로 순종하는 유한자의 태도를 뜻하는 매우 소박한 종교적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³²⁾ 이와 같은 誠敬信에 관한 이론은 대순사상에 이르러 그 종교적 성격을 부각시켜 修道의 要諦로 삼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誠·敬·信 각각의 개념에 관한 교학적 해석을 살펴보면 먼저 誠은 늘 끊임이 없이 조밀하고 틈과 쉬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하고, 敬은 심신의 움직임을 받아 일신상 예의에 알맞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하며, 信은 한 마음을 정한 바에 변하지 않고 나아가서 정성하고 또 정성하여 기대한 바 목적에 도달케 하는 것을 말한다.³³⁾ 대순사상의 경전을 통해 이 같은 해석의 근거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誠 : 이제 너희들에게 다 각기 운수를 정하였노니 잘 받아 누릴지어다. 만일 받지 못한자가 있으면 그것은 성심이 없는 까닭이니라.³⁴⁾

敬 : 김 덕찬이 상제를 대함이 항상 거만하나 상제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도리어 덕찬을 우대하시더니 하루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공사를 행하실 때 크게 우뢰와 번개를 발하니 덕찬이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하려 하니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 없거늘 어찌 두려워 하느냐」 덕찬이 더욱 황겁하여 벌벌 떨고 땀을 흘리면서 어찌 할 바를 모르더니 이후에는 상제를 천신과 같이 공경하고 받들었도다.³⁵⁾

信 : 김 자현은 六月 어느날 상제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고 다짐하시기에 「지성으로 믿사오며 고부화액 때에도 상제를 따랐나이다」 고 믿음을 표명하였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장차 어디로 가

학적 전통에 의해 전래된 것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龍潭遺詞, 道德歌 p.216 「대학(大學)에 이른 도(道)는 명명기덕(明明其德) 하여내어 지어지선(止於至善) 아닐런가 중용(中庸)에 이른말은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이오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요 수도지위교(修道之謂教)라하여 성경이자(誠敬二字) 밝혀두고 아동방(我東方) 현인달사(賢人達士) 도덕군자(道德君子) 이름하나 무지(無知)한 세상사람 아는바 천지(天地)라도 경외지심(敬畏之心) 없었으니 아는것이 무엇이며....」

31) 『天道教經典』 座箴, p74 「吾道博而約 不用多言義 別無他道理 誠敬信三字」

32) 최동희 「동학의 사상과 운동」 성대출판부, 1980, p.95

33) 대순진리회 요람, 교무부 刊, 1969, pp.16~17 참조

34) 『典經』 교법 2장 37절

35) 『典經』 교운 1장 23절

리니 내가 없다고 핑계하여 잘 믿지 않는 자는 내가 다 잊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자현은 「제가 모시고 따라가겠나이다」고 여쭙니 상제께서 다시 「어느 누구도 능히 따르지 못할지니라. 내가 가서 일을 행하고 돌아오리니 그 때까지 믿고 기다리라. 만일 나의 그늘을 떠나면 죽을지니라」고 이르셨도다.³⁶⁾

이상의 구절을 살펴볼 때 誠은 주로 마음의 자세로서 이어지는 모든 행위를 규약하며 敬은 몸가짐으로 표출되는 행동거지를 다스리며, 信은 한번 정한 바엔 다른 말을 믿지 않는 일관된 자세를 주로 말한다. 이처럼 대순사상의 誠·敬·信은 마음과 몸과 행동이 혼연 일체가 되어 목적하는 바의 일을 달성하고자 할 때의 지침으로 제시되면서 또한 신앙의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Ⅲ. 誠·敬·信論의 수양철학적 구조

1. 九天上帝와 天地誠敬信

대순사상에 있어 인간의 수양은 하나의 종교적 신앙에 입각해 있으며, 이는 절대자의 강림과 그 우주적 役事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앙대상인 九天上帝(정식 호칭으로는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는 최고신으로서 神界에 머물러 있다가 인간세상의 盡滅을 염려한 여러 신들의 호소로 인해 직접 인간의 몸으로 탄신하였다. 그 결과 ‘天地公事’라고 하는 蒼生救濟의 大役事를 행함으로써 새롭게 창조된 세계를 맞이한다는 것이 신념의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그 주요 聖句가 되는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A. 상제께서 九천에 계시자 신성·불·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서양(西洋)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오셔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三十년을 지내시면서 최 수운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셨다가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하셨도다.³⁷⁾

36) 「典經」행록 5장 19절

37) 「典經」예시 1절

B. 무신년 四월 어느날 또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 세상에 성으로는 풍(風)성이 먼저 있었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풍채(風采)·풍신(風身)·풍골(風骨)등으로 몸의 생김새의 칭호만으로 남아올 뿐이오. 그 다음은 강(姜)성이 나왔으니 곧 성의 원시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개혁시대를 당하여 원시반본이 되므로 강(姜)성이 일을 맡게 되었나니라」 하셨습니다.³⁸⁾

C. 상제께서 이듬해 사월에 김 형렬의 집에서 삼계를 개혁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 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쓰려면 쓸때 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엮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고 분부하셨도다.³⁹⁾

윗 글에서 A의 구절은 종교적 신관에 따른 최고신의 존재양상을 밝히는 것으로, 여러 神聖 佛 菩薩보다 상위에 臨在하는 구천의 상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구천상제는 ‘大巡’이라는 행위를 통해 지상으로 강림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 때 구천상제는 인격신으로서 여러 신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자기 판단을 하고 또 인간에게 계시를 내려 그 가르침을 전하기도 하고 나아가 직접 인간의 몸으로 化現하기도 하는 존재이다. 한편 구천상제가 ‘大巡’의 과정을 통해 人世에 강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인류와 신명계의 무질서에 그 원인을 두고 있으며, 최고신보다 하위의 신격인 신성 불 보살의 하소연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강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神의 세계에 담긴 질서와 체계 속에서 하나의 위계를 전제하고 보다 상위의 신격은 하위의 신격에 대해 초월적 권능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⁴⁰⁾ 이러한 신관은 대순 수양론의 신앙적 토대가 될 수 있다.

B의 구절에서는 최고신이 한 역사적 인물로 태어나게 된 당위성을 밝혀

38) 『典經』 행록 4장 17절

39) 『典經』 공사 1장 2절

40) 拙稿 「大巡神觀과 神人調化의 理想」 『대순사상논총』 제 3집, 대순사상 학술원, 1997 참조

근세의 姜甌山이 구천상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순진리회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으로 “강세하신 姜甌山이 구천상제이심을 분명히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대순지침』⁴¹⁾의 주요내용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강증산이 신앙대상으로서의 구천상제임을 논하는 근거는 대순신앙의 소의경전인 『典經』 ‘權智’편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주로 인간적 존재로서의 강증산이 행한 異蹟이 신적 존재로서의 상제 권능과 비교하여 서로 상통하는 측면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것은 상제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밝혀 강세한 강증산이 절대권능의 소유자인 상제이심을 깨우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⁴²⁾ 그 주요한 항목으로서는 命을 주관한다든지, 길흉화복을 담당하고 자연현상을 주재한다든지, 모든 것을 꿰뚫어 안다든지 하는 것으로서 후세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심을 가지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들이다.

C의 구절은 구천상제로서 강세한 姜甌山의 창생구제 役事に 해당하는 것으로 9년간(1901~1909)의 公事(天地公事 혹은 三界公事)를 통해 새로운 후천세계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公事란 공적인 事案에 대해 어떠한 私見이나 독단을 배제한 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며,⁴³⁾ 그 결정된 사항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앞으로의 역사전개를 규정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구천상제가 이룩하는 세계는 인간 누구나 지향해야만 하는 當然의 세계이며 수양을 위한 절대근거로서 주어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天地誠敬信’은 하나의 이상적 경지를 뜻하는 보편원리이다.⁴⁴⁾ 신조의 삼요체로 제시된 誠

41) 『대순지침』은 “나의 말을 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하여 생활화되도록 하라”는 대순진리회 창설자인 都典 박우당의 말씀에 따라 1980년 1월부터 1984년 3월까지의 訓示를 중앙총의회가 요청하여 교무부에서 그 要義를 정리한 것이다.

42) 拙稿 「大巡上帝觀研究」, 『大巡思想論叢』 제 1집, 대순사상학술원, 1996, pp. 306 ~ 311 참조

43) ‘公事’라는 용어는 흔히 甌山의 思想을 규정짓는데 있어서 주요항목으로 일컬어진다. 그 뜻은 원래 古典에서는 ‘私事’ 또는 ‘家事’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사사로운 일 보다는 여러 사람의 권익을 담당하는 관청이나 공공단체의 일을 지칭하고 있다. 조선왕조에 이르면 ‘公事’라는 용어가 治世用語로서 법전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官衙에서 官長이 공무를 처결하기 위해 수하관원들을 모아 회의를 열 때 “공사를 본다”는 말을 사용했다고 한다. (홍범초 『증산교개설』 창문각, 1982, p.77)

44) 교운 1장 66절에 소개된 『玄武經』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 宙宇壽命 至氣今至願爲大降 天地誠敬信...」

敬信이 천지에 가득 찬 세계는 상제의 의지가 실현된 지상선경이다. 그 선경건설에 동참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는 誠敬信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中庸에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라고 한 것은 天道와 人道의 합치로 인하여 이상적 인간상이 구현됨을 말한 것이다. 人道의 당위적 실천의 근간이 되는 것은 天道에 있다. 그 天道가 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으므로 그 誠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人道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誠을 행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내면에 誠의 본체가 내재되어 있어야 만이 가능한데 이를 中庸에서는 '天命之謂性'이라고 하여 모든 인간에 품부된 天理로서의 性을 인정하고 있다. 性, 즉 인간의 본성에는 天道로서의 誠을 體現할 수 있는 원리적인 본체가 깃들여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그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誠의 본체를 드러냄으로써 天道와 합일할 수 있고 비로소 도덕적 인간이 탄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天地誠敬信'은 인간의 수양을 위한 天道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것이다. 천지가 본래 '誠敬信'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인간 또한 誠敬信을 행해야 한다.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나 誠敬信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본체가 있으므로 그것을 드러내어 행함으로써 天道와 합치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天道의 主宰者로서 九天上帝를 신앙하고 있으므로 誠敬信은 그 자체가 상제의 마음이기도 하다. 인간이 그 내면의 誠敬信을 밝혀내어 실천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상제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이며 이로써 上帝와 인간의 합일경지인 神人合一의 이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2. 天地公事の 결정론적 성격

구천상제를 신앙대상으로 할 때 신앙의 핵심내용을 이루는 것은 天地公事이다. 천지공사란 진멸에 처한 인류와 신명계의 겁액을 해소하고 영원한 낙원의 세계를 건설해 주고자 하는 상제 의지의 결과이다. 최고신으로서의 상제가 행한 大役事는 新天地의 창조작업으로 이어지고 그 역사의 기록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 修道로써 나타난다. 따라서 수도 즉 수양의 구체적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천지공사임을 알 수 있다.

天地公事の 大體를 말하자면 다른 말로 開闢公事라고도 하며 인간을 둘러

싼 우주 환경 전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이는 모두 上帝의 권능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이며, 특히 인간의 몸으로 존재하면서 인간의 소망에 입각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典經』에서는 이러한 天地公事의 大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제께서 이듬해 사월에 김 형렬의 집에서 삼계를 개벽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 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쓰려면 쓸때 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엮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벽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 고 분부하셨도다.⁴⁶⁾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道)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 상제의 뜻은 이미 세상에 홍보된 바이니라.⁴⁷⁾

윗 글에서 天地公事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게 된 先天의 현실을 널리 구하기 위한 구제의 역사이며, 인류에게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가져다주기 위한 설계의 역사이기도 하다. 즉 先天이라고 하는 전 우주적 상황에서 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상제의 降世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天地公事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방법론으로서는 먼저 선천의 모든 원한을 해소하고 도수를 뜯어고치며, 상극으로부터 상생의 질서를 세워 후천선경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45) 張秉吉은 이러한 天地公事의 형태를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다. 첫째는 뜯는 役事(소멸 역사), 둘째는 짓는 역사, 셋째는 묻는 역사가 그것이며, 이를 공간적으로는 人起公事, 天開公事, 地關公事의 세가지 범주에서 분석하였다. (張秉吉 「天地公事論」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참조) 李正立은 이에 대해 神政整理公事, 世運公事, 教運公事로 구분하고 神政整理公事는 다시 神明解冤公事·地方神統一公事·文明神統一公事로 나누기도 하였다. (李正立 「大巡哲學」 여강출판사, 1984, pp127~148 참조)

46) 『典經』 공사 1장 2절

47) 『典經』 예시 6절

초월적인 권능의 소유자만이 가능한 것이다. 상제는 그 無所不爲의 권능으로 이러한 작업을 단행하였으므로 “오직 내가 지어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어떠한 사상적 계승을 전제하는 것도 아니고, 본래 우주가 생길 때 예정되어 있던 일도 아니다. 인간으로 강제한 구천상제께서 인류가 처한 현실을 직시한 결과 천지우주의 근본적인 재창조작업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그로써 인류는 어떤 원한도 존재하지 않는 무한한 선경의 낙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천지공사의 성격은 일정한 결정론에 입각해 있다. 세계의 운동 특히 인간의 의지 및 행위는 인간 외적인 힘, 즉 천지공사의 역사에 바탕을 둔다고 본다. 결정론의 유형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외적인 힘을 정신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이며 둘째는 유물론에서와 같이 물질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⁴⁸⁾ 천지공사는 최고신인 구천상제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서 이후의 인류역사는 그 계획된 질서에 따라 운행한다고 본다. 구천상제가 지니는 권위와 그 절대능력의 행사는 도중에 어떤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豫定說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수양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완전한 예정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구천상제가 의도한 후천선경을 향해 모든 인간이 운동한다고 할 때 여기에는 목적론적 세계관과 함께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가 전제되고 있다. 천지공사에서 확정한 후천의 모습은 ‘天地誠敬信’으로서의 본체를 지닌다. 거기에 합치되고자하는 인간의 노력은 수양으로 이어지고 그 목적은 ‘天地誠敬信’인 만큼 이는 곧 상제 의지의 실현이 되는 것이다.

48) 외적인 힘을 정신적인 것에서 찾을 때에는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의 자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중세신학의 예정설,宿命론, 불교의 인과응보론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인간의 자발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목적론적 결정론이라고도 한다.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설, 신칸트주의의 理想主義, 프래그머티즘의 慈愛主義가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는 인간외적 자발성 자체가 결정론적인 空轉이라고 인정치 않을 수 없게 된 입장인데, 현대의 니힐리즘, 니이체, 샤르트르 등이 있다. 외적인 힘을 물질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두가지 유형을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기계적인 인과법칙에 기반을 둔 형이상학적 유물론으로서 데모크리토스, 에피쿠로스, 스피노자, 뉴우튼 등이 있다. 둘째는 외적인 힘을 물질에 내재하는 모순으로 본 변증법적 유물론이 있다. (『세계철학대사전』 고려출판사 1992 참조)

3. 心의 主宰性과 수양주체의 확립

인간의 수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존재가 다른 동물과 달리 갖는 내적 특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는 동양사상의 전통에서 일컬어져 온 心性論의 문제와도 직결되며, 만물이 생성될 때 오직 사람은 그 가운데서 빼어난 기운을 얻어 가장 신령스럽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⁴⁹⁾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존재방식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서 ‘心’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하늘이 쓰고 땅이 쓰고 사람이 쓰는 것은 모두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이란 것은 귀신의 추기요 문호요 도로이다. 추기를 열고 닫으며 문호를 들락날락하며 도로를 오고 가는 神에는 혹은 선한 것도 있고 혹은 악한 것도 있다. 선한 것은 스승으로 삼고 악한 것은 고쳐쓰니 내 마음의 추기와 문호와 도로는 천지보다도 크다.⁵⁰⁾

윗 글에서 보면 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에 두루 걸쳐 있으면서 모든 운동을 결정하는 主宰性을 지닌다. 이는 비단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지 않고 인간 밖의 天地에 까지 소급하여 주어져 있다. 여기서 天地는 인간을 낳고 기르는 생명의 근원이다.⁵¹⁾ 天地에서 태어난 인간은 천지로부터 받은 心을 지니게 되는데 인간의 모든 언행은 이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다.⁵²⁾ 따라서 心은 天地를 주재하면서도 인간의 모든 행위를 주재한다.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고 이상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것이 ‘修養’ 또는 ‘修道’의 삶으로 나타난다.

종교적 수양론의 관점에서 윗 글을 살펴볼 때 인간의 心은 초월적 神과 교통할 수 있는 기관으로도 설명된다. 말하자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樞

49) 周濂溪 「太極圖說」 「…萬物生生而變化無窮焉，唯人也得其秀而最靈…」

50) 「典經」행록 3장 44절 「…天用地用人用統在於心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

51) 「典經」교법 3장 47절 「事之當旺在於天地 必不在人 然無人無天地 故天地生人用人」

52) 「典經」교법 1장 11절 「…악장제거 무비초 호취간래 총시화(惡將除去無非草 好取看來總是花)라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

機와도 같고 문 그 자체이기도 하며 오고가는 길이 되기도 한다. 문을 열고 닫으며 오고 가는 존재는 바로 종교적 대상으로서의 神이며, 이는 善과 惡이 혼재하는 세계의 본질이다. 따라서 인간은 心을 지닌 주체로서 善神과의 선택적인 교류를 통해 가치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의의는 이와 같은 神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으며 나아가 神과 인간이 조화로운 합일을 이룬 경지에서 인간의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됨을 알 수 있다. 바로 여기서 대순사상의 '人尊' 개념이 드러난다. 神·人의 합일을 지향하고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학적 개념으로서의 人尊은 天尊과 地尊보다도 크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⁵³⁾

人尊은 神本과 대립된 人本 또는 휴머니즘적인 발상이 아닌 인간의 진정한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主客合一, 自他不二의 理想을 제시하는 개념이다. 이것을 수행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기관이 곧 心이라는 것이며, 이를 다스리고 수양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 이런 의미에서 人尊思想은 인간의 모든 수양적 행위를 위한 주체성 확립의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IV. 이상적 삶과 誠·敬·信의 실천론

1. 安心·安身과 醫統의 체득

'天地誠敬信'으로 주어진 후천의 理想은 현실에서의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이룩될 수 있다. 성·경·신 三要諦는 인간의 실천적인 규범으로서 기능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마음가짐의 문제, 몸가짐의 문제, 처세의 문제 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信條의 四綱領에서 제시된 安心 安身の 二律令이 실천강령의 大體를 이루고 있음을 밝혀 이것이 곧 성·경·신의 실천론과 이어짐을 밝히기로 한다.

53) 『典經』 교법 2장 56절

구천상제가 이룩한 천지공사는 상극의 선천에서 상생의 후천으로 세계를 전환시킨다는데 의의가 있다. 선천과 후천이 서로 교차되는 때는 마치 사계절의 환절기와도 같아서 과도기적인 양상이 수반된다. 그것은 선천의 폐해가 누적되고 그 한계를 노정함으로써 생겨나는 일시적인 혼란 현상이다. 낡은 선천의 세계로부터 새로운 후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혁명적인 전환의 機制를 생각지 않을 수 없는데, 病劫은 그러한 혼란의 상태를 질병의 유행에 비유하여 모든 인류가 겪는 부정적인 현상을 가리킨다. 여기에 지혜 있는 사람의 선택이란 그 피할 수 없는 병겁의 과정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겠는데 대순사상에서는 이를 醫統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상제께서 앞날을 위하여 종도들을 격려하여 이르시니라. 「바둑에서 한 수만 높으면 이기나니라. 남이 모르는 공부를 깊이 많이 하여두라. 이제 비록 장량(張良)·제갈(諸葛)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어느 틈에 끼어 있었는지 모르리라. 선천개벽이후부터 수한(水旱)과 난리의 겁재가 번갈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진탕하여 왔으나 아직 병겁은 크게 없었나니 앞으로는 병겁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법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의통을 잘 알아 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봄으로부터 이 동토에서 다른 겁재는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남았으니 몸 돌이킬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려 오듯 하리라.」 고 말씀하셨도다. (공사1장 36절)

병겁과 의통은 서로 相依的 관계이다.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이 있고 또 한 그 약이 있으면 그 병이 있는 것과 같다. 선천의 한계상황이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 그 혼란이 병겁으로 이어진다. 기상이변이나 전쟁등은 水旱과 난리의 겁재로서 병겁이라고 볼 수 없다. 오직 병겁은 인류 모두가 스스로 겪어야만 하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큰 병은 無道한데서 생겨나고 작은 병도 無道한데서 생겨난다. 그 道를 지니게 되면 큰 병은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낫고 작은 병도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다. ...이 세상은 忠이 없고 孝가 없고 烈이 없다. 그러므로 천하가 다 병들은 것이다. 병세를 살펴보면, 천하의 (無道한데서부터 생겨난) 병을 얻은 자는 천하의 (有道한) 약을 쓰게 되면 그 병이 곧 나올 것이다.⁵⁴⁾

병겁의 발생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無道이다. 이 때의 道는 ‘神道’ ‘天道’ ‘人道’ 등의 뜻으로 쓰이면서 엄격한 질서나 법칙으로 볼 수도 있고 인간사회의 윤리도덕으로 볼 수도 있다. 윗 글에서는 특히 인간사회의 윤리도덕이 道의 주요한 뜻으로 서술되어 있다. 말하자면 忠·孝·烈과 같은 윤리도덕이 무너지고 사회기강이 흩어짐으로 인해 무질서가 초래되고 이는 無道의 상태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無道는 나아가 사회적 질병을 야기시키고 생물학적인 의미의 질병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醫術이 등장하고 이 때의 의술은 그 병의 원인진단과 함께 藥의 투입으로 정상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병의 원인이 되는 無道에서 그 병의 약이 되는 有道를 통해 병겁에서 헤어나게 하는 것이다. 無道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다양한 질병의 양상을 아우를 때 그 총체적인 현상을 병겁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원리적인 치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醫統이라고 하였다.

『典經』에 따르면 安心安身은 이와 같은 醫統의 방법으로 제시된다. 安心安身이 ‘大病之藥’이라고 한 것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⁵⁴⁾ 大病은 無道에서 나온다고 하였으니 즉 神道에 대한 망각으로 인해 발생한 병이므로 神道の 회복으로 인한 마음의 평정이 큰 병을 낫게 하는 약이 된다는 것이다. 心과 身의 관계에 있어서 주체성의 근원은 역시 마음이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이 마음의 상태를 항상 ‘一心’ 과 ‘正心’으로 유지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의뢰심과 두 마음을 품으면 신명의 음호를 받지 못하나니라⁵⁶⁾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던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 되리라는 생각을 품지 말라.⁵⁷⁾

공사를 행하실 때나 또 어느 곳에 자리를 정하시고 머무르실 때에는 반

54) 『典經』행록 5장 38절, 「…大病出於無道 小病出於無道 得其有道 則大病勿藥自效 小病勿藥自效…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 病勢, 有天下之病者 用天下之藥 厥病乃愈…」

55) 『典經』행록 5장 38절 「…大病無藥 小病或有藥 然而大病之藥 安心安身 …」

56) 『典經』행록 4장 40절

57) 『典經』교범 2장 5절

드시 종도들에게 정심을 명하시고 혹 방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보신
듯이 마음을 거두라고 명하셨도다.⁵⁸⁾

이렇게 一心과 正心を 지니게 됨으로써 安心이 되고, 이것이 몸을 안정시
켜서 安身으로 이어져 無病이 된다는 것이다. 항상 無病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醫統을 체득한 사람이다. 이는 곧 天地誠敬信의 본체와 합
일된 경지임을 말해주고 있다.

2. 福祿誠敬信과 壽命誠敬信

天地誠敬信의 이상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태인 인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
다. 인간의 삶은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다양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데, 福
祿이 주로 삶의 질적인 측면을 가리킨다면 수명은 삶의 양적인 측면을 가리
킨다. 삶의 질과 양은 다같이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양보
다 질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삶이 양적으로 계속 연장된다
면 차라리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반대로 환희로운 순간이
오면 그 시간이 계속 연장되기를 바란다. 이처럼 삶에 있어서 量은 質에 수
반되어 나타나야만 그 효용을 극대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복록과 수명에 대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세상에서 수명 복록이라 하여 수명을 복록보다 중히 여기나 복록이 적
고 수명만 길면 그것 보다 욕된 자가 없나니 그러므로 나는 수명보다
복록을 중히 하노니 녹이 떨어지면 죽나니라.⁵⁹⁾

윗 글에서 복록은 수명에 우선하는 삶의 질을 가리킨다.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삶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복록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書經』에는
五福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壽·富·康寧·攸好德·考終命’을 들고 있다. 경
제적인 부와 명예 건강 수명등이 포함되어 있다. 『孟子』에는 君子三樂을

58) 『典經』 교법 3장 8절

59) 『典經』 교법 1장 16절

말하기를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無故한 것, 위 아래로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한 것, 훌륭한 인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⁶⁰⁾을 들었다. 여기에는 공히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즉 복록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정치적 권력을 제외하고 경제적인 부와 건강, 수명 그리고 人德의 수양과 발휘의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인간이 장수하는 壽命도 결국 福祿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삶은 이와 같은 복록을 누리하고자 하는데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본다.

대순사상에서 인간 삶의 복록을 결정하는 모든 행위는 天地誠敬信의 본체를 확보하는데 있다. 天地의 본체가 誠敬信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인간의 행위도 그와 같은 誠敬信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 곧 복록과 수명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天地는 상제의 天地公事로 주어지는 後天의 天地임은 물론이다. 先天의 相克으로 얼룩진 모순된 천지가 아닌 원한과 쟁투가 없는 相生의 天地이다. 후천의 天地가 誠敬信의 본체를 지냄으로써 그 세계를 맞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誠敬信을 실천할 것이 요구된다.

상제께서 정미년 선달 스무 사흘에 신 경수를 그의 집에서 찾으시니라. 상제께서 요(堯)의 역상 일월성신 경수인시(曆像日月星辰敬授人時)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일월이 아니면 빈 껍데기요. 일월은 지인(知人)이 아니면 허영(虛影)이요. 당요(唐堯)가 일월의 법을 알아내어 백성에게 가르쳤으므로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이치가 비로소 인류에게 주어졌나니라」 하셨도다. 이때 상제께서 일월무사 치만물 강산 유도 수백행(日月無私治萬物 江山有道受百行)을 가르치고 오주(五呪)를 지어 천지의 진액(津液)이라 이름하시니 그 오주는 이러하도다.

新天地家家長歲 日月日月萬事知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福祿誠敬信 壽命誠敬信 至氣今至願爲大降
明德觀音八陰八陽 至氣今至願爲大降
三界解魔大帝神位願趁天尊關聖帝君 61)

윗 글에서 새로운 천지는 구천상제에 의해서 지어지는 造化의 세계이다.

60) 「孟子」盡心上「孟子曰 君子有三樂而王天下不與存焉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仰不愧於天 俯不忤於人 二樂也 得天下英才 而教育之 三樂也 君子有三樂 而王天下 不與存焉」

61) 「典經」교운1장 30절

이 세계를 구현하는 본체가 되는 것이 誠敬信이다. 복록과 수명은 모두 이 誠敬信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복록과 수명은 모두 誠敬信에 있다고 言明한다. 수양에 있어서 이와 같은 誠敬信을 실천하여 자아를 성취하는 것은 곧 자신의 복록과 수명을 얻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3. 성·경·신의 생활화와 道通眞境의 실현

誠敬信의 실천은 궁극적으로 수양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연계된다. 수양의 목적이 자아완성이라면 그 완성된 자아가 모여 사는 세계는 道通眞境이다. 이는 개인의 수양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실현한 것이다. 개인의 일상적 誠敬信에서 사회적 誠敬信으로 확대될 때 그 진정한 가치실현이 이루어질 것이다.

誠에는 字典上 ‘정성’ ‘진실’ ‘참됨’ 등의 뜻이 있다. 그 참된 실천을 위해서는 먼저 言行에 있어서의 책임감이 필요하다. 誠이라는 字意가 言+成으로 이루어진 만큼 자신의 말한 바를 책임질 줄 아는 것은 그 마음의 정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⁶²⁾라고 하였듯이 말과 행동의 중추는 모두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의 본체를 誠에다 두었을 때 그 말과 행실이 진실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반대로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그러한 誠을 실천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참됨’을 구현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또한 誠을 실천하는 길이다. 어려운 고비에 부딪혔을 때 중도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헤쳐 나가는 것은 誠을 실천하는 모습이다. 『孟子』에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내리려 하실 적에 반드시 먼저 그 心志를 괴롭게 하며 그 筋骨을 수고롭게 하며 그 體膚를 굶주리게 하며 그 몸을 窮乏하게 하며 행함에 그하는 바를 拂亂시키니 이것은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게 하여 그 능하지 못한 바를 增益해 주고자 해서이다.”⁶³⁾라고 한 것은 그 誠을 실천하는

62) 『典經』 교법 1장 11절

63) 『孟子』 告子 下 「故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

양상을 잘 표현해주는 내용이라 하겠다.

敬은 字典上 ‘공경’ ‘경건’ ‘畏敬’ 등의 뜻이 있다. 그 대표적인 실천방법 으로서는 첫째 신앙대상에 대한 외경의식이다. 상제의 천지공사를 믿고 따르는 데에는 그 초월적인 권능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함께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맡길 수 있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에 동원되는 감정이 바로 畏敬이라고 할 수 있다. 항상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신명에 대해 조심하는 몸가짐은 곧 敬을 실천하는 길이 된다. 둘째는 일상생활에서 모든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敬은 모든 예의의 근본이다”⁶⁴⁾라고 하였듯이 禮儀的인 실천은 敬을 표현하는 길이 된다. 상제 신앙에 있어서의 禮儀的 실천은 종교적 의식으로 나타난다. 일상생활에서의 예의적 실천은 타인과의 신뢰감을 조성하고 사회도덕을 지킬 수 있다. 위 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애호지도함은 모든 예의를 통해 표출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信은 字典上 ‘믿음’ ‘신뢰’ ‘신념’ 등의 뜻을 지닌다. 이를 실천한다 함은 첫째, 신앙대상에 대한 진실된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을 나에게 주어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⁶⁵⁾고 하였듯이 구천상제를 신앙하고 그 천지공사를 믿는 것은 결과로서의 후천을 맞이하는 것과 직결된다 하겠다. 여기에 천지공사는 하나의 관념적인 사상이 아니라 절대권능자가 행한 새로운 천지창조의 歷史임을 재삼 강조하게 된다. 信의 실천방법에 있어서 둘째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신뢰회복이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존재의의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만큼 신뢰성회복은 그 상대적인 道理를 실천하는 것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 즉 父子 君臣 夫婦 長幼 朋友 등의 관계는 ‘忠’ ‘孝’ ‘烈’ ‘悌’ ‘慈’ ‘義’ 등의 덕목으로써 서로의 도리를 다할 때 성립될 수 있다. 그 덕목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해서는 자신의 위치를 보장 받을 수 없다. 모두가 쌍방의 도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원하건대 人道를 바라오니, 임금이 되고자 하나 임금이 될 수 없고, 부모가 되고자 하나 부모가 될 수 없고, 스승이 되고자 하나 스승이 될 수 없다. 임금은 있으

64) 「國語」 「敬者禮之本也」

65) 「典經」 교법 1장 5절

나 신하가 없으니 그 임금의 어디에 설 수 있을 것이며, 부모가 있으나 자식이 없으니 그 부모가 어디에 설 수 있을 것이며, 스승은 있으나 제자가 없으니 또한 그 스승이 어디에 설 수 있겠는가?”⁶⁶⁾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은 사회관계에서의 신뢰회복을 강조한 것에 다름 아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信’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로써 개인의 믿이 사회로 확산되는 계기를 맞이한다.

이상과 같은 誠敬信의 실천은 한 인간의 참된 본성이 발현되어 대사회적 실천으로 그리고 상제에 대한 신앙으로 확산되는 것을 말한다. 개인에 있어서는 자아완성을 위한 수양적 실천이 될 것이며, 대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사회도덕을 준수하여 대인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된다. 여기에 실천적 근거로써 주어진 상제신앙은 천지공사에 나타난 ‘天地誠敬信’의 본체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모든 인간이 체득하여 발휘함에 따라 수양적 실천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그 가치실현의 궁극적 경지를 일컬어 ‘道通眞境’이라고 하니 개인의 자아완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가 완전히 실현된 이상세계를 가리키고 있다.

V. 結 言

이상으로 성·경·신 三要諦와 관련하여 대순사상의 수양론적 체계를 살펴보았다. 대순사상은 기본적으로 최고신인 구천상제에 대한 종교적 신앙을 배경으로 한다. 오늘날 하나의 종교로서 자리잡은 대순진리회는 그 교학적 연구를 통하여 현대사회의 새로운 종교운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새로운 종교의 출현은 그 사회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의 제시를 가능하게 하는데 대순사상에서는 구천상제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우주관 인간관 윤리관의 틀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특히 인간관의 범주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신앙에 입각한 수양론의 체계이다. 수양의 근거가 되는 구천상제의 천지공사와 후천의 새로운 가치로서 제시된 天地誠敬信의 이념하에서 인간은 새로운

66) 『典經』 공사 3장 40절 「…所願人道 願君不君 願父不父 願師不師 有君無臣其君何立 有父無子其父何立 有師無學其師何立 …」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 ‘天地誠敬信’을 구현하기 위한 가능적 근거로서 인간은 누구나 마음의 본체를 지니고 있으며 그 본체는 또한 誠敬信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마음에 담긴 誠敬信의 본체를 드러냄으로써 비로소 天地誠敬信과 합치될 수 있으며, 그 합일된 경지를 人尊으로 묘사하고 있다. 모든 인간의 人尊이 구현된 사회는 地上仙境이며 道通眞境이다. 대순사상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도 이와 같은 세계라고 볼 때 인간의 수양론적 실천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어야만 할 것이다.